

조선 후기 ‘예언가 남사고’의 탄생과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박상현*

목 차

1. 머리말
2. 16세기 율진 유희의 사표
3. 17세기 ‘예언가 남사고’의 탄생
4. 18세기 비기의 저자, 남사고
5. 맺음말

[초록]

16세기 초 율진의 재지사족 가문에서 출생한 남사고는 유생의 신분으로 한평생을 보냈다. 그러나 사후에 그에 대한 유학자들의 평가는 서로 엇갈렸다. 율진 유생들이 남사고를 지역의 사표로 지속적으로 추앙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남사고는 탁월한 예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이러한 후대의 엇갈린 평가는 그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율진의 유생들은 남사고가 『소학』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후학에게 학문적 도움을 줬다는 점을 근거로 덕행이 높았던 유학자로 인식했던 반면, 일단의 유학자들은 그가 천문과 역학에 밝았던 점을 근거로 예언가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인식이 엇갈리던 중 남사고의 예언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자, 인식은 점차 탁월한 예언가로 경도되어 갔다. 그로 인해 남사고를 덕행이 높은 유학자로 추앙했던 사람들조차도 그의 예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사고의 예언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보다는 천문·역학에 밝았다는 인식과 남사고를 예언가로 평가했던 선학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예언가 남사고’는 유학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초 남사고에 가탁한 비기가 등장하자, '예언가 남사고'에 대한 유학자들의 관심은 점차 식어갔다. 남사고의 비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그의 예언이 유학자들에게 부담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중반이 지나면 남사고의 예언은 유학자들의 기록에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후 '예언가 남사고'는 유학자들 관심에서 벗어나, 소의·불만 계층의 의해 보다 활발히 향유되고 재생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제어] 남사고, 예언가, 비기(秘記), 유학자, 울진

1. 머리말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예언가들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개인사에서부터 국가의 중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언을 남겼으며, 직·간접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끼쳤다. 예언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뿌리내리면서 유학자들을 필두로 예언 자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언은 유학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일종의 이단(異端)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유학자와 예언이 반드시 대척점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언을 남겼거나, 혹은 그로 인해 명성을 떨쳤던 이들 대부분이 성리학에 근본을 둔 유학자였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이들은 유학자이면서도 예언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바라보는 관점을 유학자적 면모에 두느냐, 예언가적 면모에 두느냐에 따라 후대의 평가는 달랐다.

1) 예언을 남겼다고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렴(鄭濂, 1506~1549), 박지화(朴枝華, 1513~1592), 이지함(李之菡, 1517~1578), 정작(鄭碯, 1533~1603), 이득윤(李得胤, 1553~1630)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중 정렴은 『북창비결(北窓秘訣)』, 이지함은 『토정비결(土亭秘訣)』, 이득윤은 『서계이선생가장결(西溪李先生家藏訣)』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안춘근, 1981, 『鄭鑑錄集成』, 아세아문화사; 백승종, 2007, 『예언가 우리 역사를 말하다』, 푸른역사 참고).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 1509~1571)는 유학자와 예언가의 경계에 서있는 인물이다. 그는 천문(天文)·역학(易學)에 정통했던 이인(異人)이자 각종 비기(秘記)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한편으로는 뛰어난 덕행으로 지역 유림에게 추앙을 받았던 유학자였다. 이에 따라 남사고에 대한 평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왔다. 즉, 하나는 탁월한 예언가로 보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리학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통 유학자로 보려는 것이었다.²⁾

그러나 이분법적인 논리로 남사고라는 인물을 규정짓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관한 당대의 기록이 매우 소략할 뿐만 아니라 저서조차 병란으로 거의 다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사고에 대한 평가가 사실관계보다는 후대의 서로 다른 관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당대인의 관점과 인식을 토대로 '유학자 남사고'와 '예언가 남사고'를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사고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구전설화와 일단(逸段)의 유학자들이 남긴 문헌기록이 있다. 양자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남사고가 재지사족이었고 교류한 인물들 역시 유학자였음을 고려한다면, 그의 행적에 관심을 둔 인물들 역시 주로 유학자였을 가능성이 크며, 둘째, 이들 기록은 그 기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 구비설화보다 인식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유학자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유학자 남사고'가 '예언가 남사고'로 인식되는 과정과 그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남사고는 사후에 올진 유생들에 의해 서원에 배향되며 지역의 사표(師表)로 추앙받았으나, 17세기부터는 일단의 유학자들의 기록에 의해 유학자라기보

2) 정우락, 2000, 「남사고 전승의 존재양상과 지향」, 『格菴 南師古의 生涯와 思想』, 蔚珍郡·朝鮮史研究會, 149~151쪽 참고.

다는 예언가로서 명성을 점차 떨쳐나갔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자 그에게 가탁한 비기가 출현하게 되고, 곧 기피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후 유학자들은 더 이상 남사고의 예언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예언가 남사고’는 소외·불만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며 재생산되었다. 본고는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남사고라는 인물을 조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예언가의 출현 과정과 변화를 추적하려는 작은 시도이다.

2. 16세기 울진 유림의 사표

1) 유생로서의 삶

남사고는 1509년(중종 4) 강릉부(江陵府)의 속현인 울진(蔚珍)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경원(景元) 혹은 복초(復初)라고 했으며,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격(格)’자를 취해 격암(格菴)을 호로 삼았다. 그의 가문은 영의공(英毅公) 남민(南敏)을 시조로 한 울진의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증조부인 남호(南顥)는 조선 초에 만호(萬戶)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부인 남구주(南九疇)와 부친인 남희백(南希伯)이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서 남사고 대에는 한미한 가문에 머물렀다.

남사고는 평생 세 번에 걸쳐 거처를 옮기며 살았다. 처음 설두(雪竇)에 살던 그는 이후 남수산(嵐岫山) 밑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말년에는 주천대(酒泉臺) 아래에 머물며 여생을 보냈다. 이처럼 여러 번 거처를 옮겼던 사실은 그의 삶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설두는 남사고가 성장하고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다. 그러나 남사고의 생애 가운데 설두에서의 행적은 거의 전하는 것이 없어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어린 시절에 길에 떨어진 패도(佩刀)를 보고

도 못 본 척 지나쳐 사람들이 그 의연함을 칭송했다는 일화만이 여러 문헌에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외에 김하구(金夏九)와 남고(南皐)가 쓴 묘갈명(墓碣銘)에서도 일부 전하고 있지만,³⁾ 의례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설두에서의 행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젊은 시절의 남사고의 행적은 다소 묘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양반들이 과거 급제를 목표로 삼았던 만큼 그 또한 과거시험 준비에 매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남사고는 남수산 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이미 만년(萬年)에 이른 시기였다. 당시의 행적은 『격암선생유전(格菴先生遺傳)』에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격암선생유전』은 임유후(任有後)가 울진으로 직접 가서 남사고에 관한 부로(父老)들의 증언과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모아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는 수십 년간 남사고의 문하(門下)를 드나들었던 남세영(南世英)의 증언이 담겨있다.

임유후가 만났을 당시 90대의 고령이었던 남세영은 남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공(公)은 설두(雪竇)에서 살다가 남수산 밑으로 옮겨와서 수 칸의 작고 누추한 집을 지어 살았는데, 바람과 비도 가리지 못하였다. 집이 쓸쓸하기가 말할 수 없었으며, 헤진 돛자리를 문에 달고 살면서도 흡족해 하며 개의 치 않았다.⁴⁾

회고에 의하면, 남수산 밑에 자리한 남사고의 거처는 몹시 초라하였다. 비록 설두에서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남수산 밑으로 옮길 당시에는 거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남사고를 비롯해 3대가 벼슬을 하지

3) 金夏九, 『楸菴集』 6, 「墓碣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南皐, 『時庵先生文集』 14, 「墓碣誌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4)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26쪽.

못했던 점도 있겠지만, 물려받은 가산 역시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사고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집 주위에 복숭아나 오얏나무 등을 심고 풍광과 술을 벗 삼아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다고 한다.

남사고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 응시만은 단념하기 않은 듯하다. 1564년(명종 19) 최운우(崔雲遇)에게 보낸 서찰에서는 “미구(未久)에 과거를 보러 떠나려던 차인데, 가는 길에 찾아 뵈겠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를 통해 그가 5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여전히 과유(科儒)로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러나 남사고는 끝내 과거 급제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과거 시험과 관련하여 남세영은 한 일화를 전하고 있다.

내가 소싯적에 공이 장차 과거를 보려 하면서 “괴롭구나. 이렇게 이롭기도 하고 이롭지 않기도 한 길을 또 다시 가 봐야 하다니”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선생님께서도 역리(易理)에 밝으시니 이로우면 가시고 이롭지 않으면 가지지 않으면 될 터인데 무엇을 그렇게 초조해 하십니까?” 하였더니 공이 웃으며 말하길,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공은 이어 “내가 일찍이 조(曹)에서 내 운명을 추산(推算)하여 보았더니, ‘비록 공명객(功名客)은 되지 않겠지만,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벼슬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하나 선비가 이 세상에서 과거를 통해 벼슬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천지를 경동할 수 있는 사업(事業)을 할 수 없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이루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것이네”라고 하셨다.⁶⁾

일화 속에는 과거시험에 대한 남사고의 복잡한 심경이 묻어있다.

5) 南師古, 1997, 「答崔香湖雲遇」,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20쪽.

6)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29~30쪽.

조부와 부친이 관직에 오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과거 급제는 그의 일대 목표 중 하나였다. 젊은 시절부터 과거시험 준비를 했던 남사고는 비록 향시(鄕試)에는 여러 번 합격을 했으나, 한양에서 치르는 회시(會試)에는 늘 낙방하였다. 낙방을 거듭하자 자신의 운명이 궁극하여 추산을 해 보았으나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다. “공명객(功名客)이 될 수는 없지만, 천지를 경동(驚動)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점괘는 어쩌면 과거에 급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번번이 낙방하는 상황과 그렇다고 과거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었던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남세영은 그가 명예와 이익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초연하지 못했던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⁷⁾

남사고의 학문적 경향은 전하는 저서가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과유로 지내면서 과거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그의 학문적 근원이 유학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울진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사승관계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탁마(琢磨)할 학우도 얻지 못한 까닭에 학문 연마와 이를 기반한 관직 진출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건이 유학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남사고는 명종 말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면서 사직참봉을 제수받고 비로소 관직에 나아가게 된다. 제수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최운우에게 서찰을 보냈던 시점을 감안한다면 1564년 1월 26일 이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직참봉으로 재직하면서 한양에 체류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듯하다. 잠시 동안 한양에 머물렀다는 남세영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1565년(명종 20) 전후에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7)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31쪽.

그토록 바라던 벼슬길이었으나 짧은 기간 만에 사임한 이유는 사직 참봉이 종9품의 미관말직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당시 그의 학문적 수준과 5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비추어 본다면 사직참봉은 품은 포부와 너무나 괴리가 있는 관직이었던 것이다. 짧은 관직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남수산의 거처로 돌아온 남사고는 사직참봉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가난한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곤궁한 생활을 이어갔다.

평소부터 주천대의 경관을 좋아했던 남사고는 곧 그 아래에 오두막 집을 짓고 거처를 옮긴다. 이 때부터 남사고는 과거응시를 단념하고 처사(處士)로서의 삶을 지향하면서 오로지 역학 연구에 몰두했던 것 같다. 그는 속세의 잡념들을 떨쳐버리고 태극(太極)의 오묘한 원리에 빠져들었으며, 손수 「완역도(玩易圖)」를 도안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여생을 주천대 아래에서 보내려 했던 남사고는 선조 초에 관상감교수를 제수받고 다시금 한양으로 떠난다. 관상감교수에 제수된 까닭은 이미 세간에 천문에 밝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는 관상감교수에 재임 중이던 1571년(선조 4) 12월 3일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남사고의 부음이 전해지자 한양 내의 많은 사우(士友)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남사고가 고향인 울진이 아닌 한양에서 생을 마감한 탓에 사우들이 힘을 모아 시신을 수습하고 울진까지 운구하였다. 운구 후에도 어떤 이는 치산(治山)하는 인부를 구해와 장례를 도와주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제물(祭物)과 제문(祭文)을 가지고 와서 제사했다고 한다.

남사고는 일찍이 과유의 삶을 살았으나 거둬들인 좌절을 겪고 처사의 삶을 지향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비록 일대 목표였던 과거 급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했던 지식인이자 효렴으로 천거될 정도로 덕행이 뛰어났던 군자였다.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도움이 이어졌던 것도 이런 그
에 대한 흥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 울진 유림의 추앙

울진 유생들은 남사고가 사망한지 3년 뒤인 1574년(선조 7)에 공문
을 통해 옥계서원(玉溪書院)을 건립하고 남사고를 배향하였다. 옥계서
원은 울진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서원으로서 지역 내의 다른 서원에
비해 약 100년이나 앞서 건립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16세기 울진에
서 남사고가 차지했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유생들이 남사고를 옥계서원에 배향한 까닭은 유학자로서의 학문
적 태도와 업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유생들의 평가
는 옥계서원의 완공을 위해 관찰사(觀察使)인 권징(權徵)에게 도움을
청하는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생각건대 다행히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가 분발하여 성취함으로써
우리 고을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열 집이 있는 고을이라면 반드시 충신(忠
信)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분이 아니겠습니까.⁸⁾

먼저 유생들은 남사고가 학문적으로 성취를 거두었으며, 고을에 혜
택을 준 충신한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울진은 지리적으로 동쪽에 치
우쳐 있어 중앙의 유교문화가 닿기 어려운 곳이었다. “동해의 궁벽한
곳에 위치한 잔읍에 불과해 왕화(王化)조차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
다”는 유생들의 표현은 16세기에 울진이 처해있던 상황을 대변해준
다.⁹⁾ 그런 까닭에 울진에는 유생들이 사우(師友)로 삼을 만한 학자는
물론이고, 학문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도 없었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남사고는 자력으로 학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

8) 1997, 『玉溪書院儒生上觀察使權公徵書』,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59쪽.

9) 1997, 『玉溪書院儒生上觀察使權公徵書』,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59쪽.

으로 율진의 문풍(文風)을 진작시킨 인물이었던 것이다.

유생들이 높이 평가한 남사고의 학문적 성취란 유학의 대표적인 수신서인 『소학(小學)』과 관계있었다. 남사고는 재지사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가난하고 궁색한 삶을 살았다. 특히 만년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된 거처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남사고가 늘 곁에 두고 탐독했던 유학서는 『소학』이었다. 남세영의 증언에 따르면 남사고의 책상 위에는 항상 『소학』 한 질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¹⁰⁾

남사고는 『소학』을 탐독하면서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도 성실히 실천하였다. 이런 그를 남세영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성족(姓族)으로서 문하(門下)에 출입하기를 어언 수십 년인데 공이 나를 친자식처럼 생각했지만 잠시라도 한가하다 하여 흐트러진 동작을 보이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는 선생과 친했던 까닭에 때때로 명하여 안부를 전하면 공은 반드시 절하며 받았고, 옆드려서 다시 안부를 물었다. 공이 스스로 삼가는 것이 이와 같았다.¹¹⁾

회고를 보면, 남사고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예절과 법도를 지키는 것을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남세영의 눈에 비친 남사고는 기거동작(起居動作)이 엄연했을 뿐만 아니라 말과 웃음이 간략하고 조용한 도학군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소학』의 실천성을 강조한 학문적 태도는 제자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이어졌다. 주경안(朱景顔)의 행장(行狀)에 따르면, 남사고는 오직 『소학』을 일용(日用)의 표준으로 삼아 흘기(笏記)처럼 여길 것을 강조하였으며, 많이 외우고 글을 잘 짓는 것보다 『소학』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정성을 쏟도록 가르쳤다고 한다.¹²⁾

10)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25쪽.

11)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25쪽.

뿐만 아니라 “본(本)을 돈실(敦實)히 하였고, 일용이륜(日用彝倫)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재의 평가¹³⁾와 명종 대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된 사실은 『소학』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남사고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곧 그가 『소학』을 근본으로 한 도학군자를 유자(儒者)의 상(象)으로서 추구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생들이 『소학』을 실천한 남사고의 학문적 태도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당대 유학의 조류와 관련이 깊었다. 『소학』은 기묘사화로 인해 한때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도학의 실천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 가치와 중요성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었다.¹⁴⁾ 울진에서 『소학』 이념의 확산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더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사고가 중앙의 학문적 조류에 맞춰 『소학』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체득한 점은 울진 유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구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이것이 개인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풍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컸다. 관찰사에게 올린 글에서 유생들이 역점을 둔 부분도 사람들이 『소학』의 실천성을 강조한 남사고의 학문적 태도를 본받고 배웠다는 사실이었다.¹⁵⁾

『소학』의 실천성과 함께 유생들이 높이 평가한 것은 그가 남긴 학문적 업적이었다. 남사고의 저서로는 『동상유초(東床遺草)』·『임광기(林廣記)』·『천자문주해(千字文註解)』가 있었으며, 그림으로는 「완역도」가 있었다고 전한다. 『동상유초』는 남사고의 초고(草稿)로 알려져 있으나, 화재와 보관의 잘못으로 상당 부분이 유실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겨우 몇 수의 시와 한 편의 부(賦), 그리고 서찰 및 묘지명만이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광기』는 남사고가 운명에 관한 것들을

12) 1997, 「持平朱公景顔行狀」,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52쪽.

13) 李栽,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39쪽.

14) 윤인숙, 2016, 『조선 전기의 사람과 <소학>』, 역사비평사 참고.

15) 1997, 「玉溪書院儒生上觀察使權公徵書」,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59쪽.

사방에서 수집하여 기록한 것이었다.¹⁶⁾ 그러나 생존 당시에 상사(上舍)인 주씨(朱氏)에게 빌려주었다가 분실되었다고 한다. 이밖에 『천자문주해』는 초학자(初學者)들을 위한 한자교본이었으며, 「완역도」는 이기(二氣)가 순환하는 그림이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 유생들이 높이 평가한 업적은 『천자문주해』의 저술과 「완역도」의 도안이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자(千字)는 주(註)가 있어 초학(初學)이 성취하는 바가 있고, 「완역도(玩易圖)」는 이치를 궁구하는데 보완이 되는 바입니다. 그 공(功)이 학자에게 있어 작지 않습니다.¹⁷⁾

글에서 유생들은 『천자문주해』는 초학자들에게 학문 연마를 위한 참고서가 되었으며, 「완역도」는 이치를 궁구하는 후학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6세기 후반의 울진은 수령으로 부임한 정구수(丁龜壽)가 첫 번째 사업으로 학교 건립을 꿈꿀 만큼 유학 교육이 낙후한 상태였다. 게다가 정구수의 부임이 남사고 사후의 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전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남사고의 『천자문주해』와 「완역도」가 유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사고에 대한 추앙은 옥계서원이 소실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옥계서원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유생들은 몽천사(蒙泉祠, 1631년)를 건립해 남사고를 향사했으며,¹⁸⁾ 몽천사가 철폐되자 향현사(鄉賢祠, 1693년)로 이향(移享)하면서 그 추앙을 이어나갔다. 이 같은 남사고에 대한 추앙은 울진이 갖는 지역성에 기인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소학』을 중요시 여겼던 남사고의 학문적 태도와 그가 남긴 업적

16) 南師古, 1997, 「答崔香湖雲遇」,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21쪽.

17) 1997, 「玉溪書院儒生上觀察使權公徵書」,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61쪽.

18) 申悅道, 『懶齋先生文集』 5, 「書」 答金梅園.

이 16세기의 울진 유생들에게 끼친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3. 17세기 '예언가 남사고'의 탄생

1) 남사고의 예언과 그 확산

비록 사후에 울진 유생들에 의해 지역의 사표로 지속적인 추앙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 후기에 남사고는 덕행이 높았던 유학자라기보다는 탁월한 예언가로 널리 알려졌다. 남사고가 예언가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의 예언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 남사고의 예언은 주로 구전(口傳)이나 기록을 통해서 후대로 전해졌는데, 설화적 요소가 강한 구전에 비해 신뢰도가 높았던 유학자들의 기록은 예언이 확산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 표는 남사고가 예언한 사건과 그 발생 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남사고의 모든 예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의 대표적인 예언이자 실현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예언들이다.

<표 1> 남사고의 예언과 실현된 시기

예언의 내용	예언이 실현된 시기
풍신수길[平秀吉]의 출생 ¹⁹⁾	1536년(중종 31)
순회세자(順懷世子)의 죽음 ²⁰⁾	1563년(명종 18)
문정왕후의 승하 ²¹⁾	1565년(명종 20)
선조의 즉위 ²²⁾	1567년(명종 22)
남사고 자신의 죽음 ²³⁾	1571년(선조 4)
조식(曹植)의 죽음 ²⁴⁾	1572년(선조 5)
명나라 황제(융경제)의 승하 ²⁵⁾	1572년(선조 5)
동서봉당의 발생 ²⁶⁾	1575년(선조 8)
정여립(鄭汝立)의 난 ²⁷⁾	1589년(선조 22)
임진왜란 ²⁸⁾	1592년(선조 25)

광해군의 세자 책봉 ²⁹⁾	1592년(선조 25)
이괄(李适)의 난 ³⁰⁾	1623년(광해군 15)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의 회복 ³¹⁾	1683년(숙종 9)
단종의 복위 ³²⁾	1698년(숙종 24)

- 19) 李德懋, 『靑莊館全書』 59, 「蠶葉記六」 6 平秀吉四柱; 成海應, 『研經齋全集』 54, 「草樹談獻一」 南師古·鄭斗.
- 20) 李栽,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 21) 閔仁伯, 『苔泉集』 4, 「摭言」 南師古善於風水天文卜筮相術; 柳夢寅, 『於于集後集』 4, 「題跋」 題收稅官李卷帖; 申欽, 『象村雜錄』 52, 「求正錄」 上 春城錄;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李晔光, 『芝峯類說』 19, 「宮室部」 陵墓; 趙根, 『楸菴集』 7, 「雜錄」 楓溪漫錄; 李栽,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金夏九, 『楸菴集』 6, 「墓碣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成海應, 『研經齋全集』 54, 「草樹談獻一」 南師古·鄭斗; 南阜, 『時庵先生文集』 14, 「墓碣誌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 22) 閔仁伯, 『苔泉集』 4, 「摭言」 南師古善於風水天文卜筮相術; 柳夢寅, 『於于集後集』 4, 「題跋」 題收稅官李卷帖; 申欽, 『象村雜錄』 52, 「求正錄」 上 春城錄;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李栽,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金夏九, 『楸菴集』 6, 「墓碣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成海應, 『研經齋全集』 54, 「草樹談獻一」 南師古·鄭斗; 南阜, 『時庵先生文集』 14, 「墓碣誌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 23) 柳夢寅, 『於于集後集』 4, 「題跋」 題收稅官李卷帖; 許筠, 『惺所覆瓿藁』 24, 「說部」 3 惺翁識小錄下;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李栽,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金夏九, 『楸菴集』 6, 「墓碣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南阜, 『時庵先生文集』 14, 「墓碣誌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 24) 李珥, 『石潭日記』 上, 隆慶六年壬申; 朴細, 『无悶堂先生文集』 5, 「南冥先生年譜」; 許穆, 『記言』 39, 「東西記言」 德山碑; 李栽,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 25) 黃汝一, 『海月先生文集』 3, 「詩」 憶南格庵師古; 李栽,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 26) 閔仁伯, 『苔泉集』 4, 「摭言」 南師古善於風水天文卜筮相術; 柳夢寅, 『於于集後集』 4, 「題跋」 題收稅官李卷帖; 申欽, 『象村雜錄』 52, 「求正錄」 上 春城錄;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李青珣, 『燃藜室記述』 18, 「宣祖朝故事本末」 東西南北論分; 成海應, 『研經齋全集』 54, 「草樹談獻一」 南師古·鄭斗; 南阜, 『時庵先生文集』 14, 「墓碣誌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 27) 安邦俊, 『隱峯全書』 5, 「記事」 己丑記事.
- 28) 閔仁伯, 『苔泉集』 4, 「摭言」 南師古善於風水天文卜筮相術; 黃汝一, 『海月先生文集』 3, 「詩」 憶南格庵師古; 申欽, 『象村雜錄』 52, 「求正錄」 上 春城錄;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柳夢寅, 『於于集後集』 4, 「題跋」 題收稅官李卷帖; 李晔光, 『芝峯類說』 18, 「藝菴部」 方術; 金餘, 『厚齋先生別集』 2, 「雜著」 隨錄; 李栽,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金夏九, 『楸菴集』 6, 「墓碣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成海應, 『研經齋全集』 53, 「逸民傳」 柳藕·成運·成悌元·李之茵·李義健·楊士彦; 成海應, 『研經齋全集』 54, 「草樹談獻一」 南師古·鄭斗; 南阜, 『時庵先生文集』 14, 「墓碣誌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 29) 李暨, 『松窩雜說』.
- 30)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41, 「傳記類」 甲子記變.
- 31) 李衡祥, 『瓶窩先生文集』 13, 「雜著」 莊陵始末抄略後敘.
- 32) 李衡祥, 『瓶窩先生文集』 13, 「雜著」 莊陵始末抄略後敘.

남사고의 예언은 개인사에서부터 국가의 중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졌던 것은 임진왜란에 관한 예언이었다. 예언의 내용은 기록마다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임진왜란을 예측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 문정왕후의 승하·선조의 즉위·본인의 죽음·동서봉당의 발생 역시 널리 알려진 예언이었다. 이들 예언은 사건의 발생 시기로 봤을 때 남사고가 사직참봉과 관상감교수를 역임했을 때의 예언으로 판단되는데, 상제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동일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풍신수길의 출생·명나라 황제[융경제(隆慶帝)]의 죽음·순회세자(順懷世子)의 죽음·정여립(鄭汝立)의 난·광해군의 세자 책봉 등에 관한 예언도 있지만, 앞의 예언들에 비해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이처럼 남사고의 예언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주로 정치나 전란에 관한 예언들이었으며 비록 동일한 예언일지라도 그 내용은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언은 대략 16세기 초에서 17세기 말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남사고의 예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은 1536년(중종 31) 풍신수길[平秀吉]의 출생이었으며,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한 사건은 1698년(숙종 24) 단종의 복위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이 16세기 후반에 발생한 사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18세기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예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집중도를 고려한다면, 남사고의 예언은 16세기 말부터 회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나 남사고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17세기에서 18세기였다. <표 2>는 남사고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긴 저자와 그 생몰년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남사고의 예언이 어느 시기에 활발히 기록되고 전파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33) 奇自獻, 1997, 「贈故南參奉師古外孫南起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42쪽.

<표 2> 남사고의 예언을 기록한 저자의 생몰년과 기록 내용

저자	생몰년	기록한 예언 내용
이기(李暨)	1522~1600	광해군의 세자 책봉
이이(李珣)	1537~1584	조식의 죽음
민인백(閔仁伯)	1552~1626	문정왕후의 승하, 선조의 즉위, 동서봉당의 발생, 임진왜란
황여일(黃汝一)	1556~1622	명나라 황제의 승하, 임진왜란
유몽인(柳夢寅)	1559~1623	문정왕후의 승하, 선조의 즉위, 본인의 죽음, 동서봉당의 발생, 임진왜란
이수광(李睟光)	1563~1625	임진왜란
신흠(申欽)	1566~1628	문정왕후의 승하, 선조의 즉위, 동서봉당의 발생, 임진왜란
허균(許筠)	1569~1628	본인의 죽음
안방준(安邦俊)	1573~1654	정여립의 난
박인(朴細)	1583~1640	조식의 죽음
허목(許穆)	1595~1682	조식의 죽음
임유후(任有後)	1601~1673	문정왕후의 승하, 선조의 즉위, 동서봉당의 발생, 본인의 죽음, 임진왜란
조근(趙根)	1631~1690	문정왕후의 승하
홍만중(洪萬宗)	1637~1688	풍신수길의 출생, 본인의 죽음, 임진왜란
김간(金幹)	1646~1732	임진왜란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순흥도호부의 회복, 단종의 복위
이재(李裁)	1657~1730	순회세자의 죽음, 문정왕후의 승하, 선조의 즉위, 본인의 죽음, 조식의 죽음, 명나라 황제의 승하, 동서봉당의 발생, 임진왜란
김하구(金夏九)	1676~1762	문정왕후의 승하, 선조의 즉위, 본인의 죽음, 임진왜란
이궁익(李肯翊)	1736~1806	동서봉당의 발생

이덕무(李德懋)	1741~1793	평수길의 출생, 임진왜란
성해응(成海應)	1760~1839	문정왕후의 승하, 선조의 즉위, 동서봉당의 발생, 임진왜란, 이괄의 난
남고(南阜)	1807~1879	문정왕후의 승하, 본인의 죽음, 선조의 즉위, 동서봉당의 발생, 임진왜란

남사고의 예언을 기록한 저자는 대체로 16세기에서 19세기의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남사고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기(李璽)와 이이(李珣), 그리고 19세기에 생존했던 남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17세기에서 18세기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사고의 예언이 16세기 말보다는 그가 사망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17세기부터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유학자들이 남사고의 예언에 주목한 까닭은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그 예언이 내포했던 의미와 관계가 있다. 먼저 문정왕후의 승하와 선조의 즉위는 후대의 시각에서 훈척정권에 대한 경계로서 의미가 컸다. 명종 대는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훈척정권이 발호한 시기였다. 그 결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을사사화(乙巳士禍)가 발생하며 다수의 사림이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후에도 지속된 가운데 문정왕후의 승하와 선조의 즉위는 훈척정권의 부당성과 그로 인한 폐해를 환기시키는 예언이었다.

동서봉당에 대한 관심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동되며 나타났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17세기 초는 정국운영과 관련한 봉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였다.³⁴⁾ 이후 예송논쟁과 3차례에 걸친 환국(換局)을 통해 남인과 서인의 갈등은 격화되는 한편 다양한 봉당론이 펼쳐졌다. 이처럼 17세기 이후 봉당에 대한 논의와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필연성을 예견했던 남사고는 자연스레 유학자들의 흥미를 끌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4) 金容欽, 2006, 「仁祖代 前半 정치적 갈등과 朋黨論」, 『역사와 경계』 60, 부산경남사학회 참고.

그리고 임진왜란의 경우, 1627년(인조 5)과 1636년(인조 14)에 두 차례의 호란을 겪으면서 국가적 환란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반성의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환기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남사고의 예언이 16세기의 사건에 집중되었다하더라도 그 예언이 내포했던 의미는 시대적 상황과 연동되며 그 이후에도 유효했기 때문에 17세기에서 18세기의 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사고의 모든 예언이 실현되었던 사실도 유학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예언한 사건들이 실현된 시점과 저자의 생존 기간을 비교해 보면 예언은 모두 저자가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 이미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사고의 예언은 허구가 아닌 이미 ‘실현된 사실’이었기에 흥미를 가지고 기록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남사고의 예언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재생산도 함께 이루어졌다. 예언들 가운데에는 작게는 등장인물에서부터 크게는 맥락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이는 예언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진왜란에 관한 것으로, 임진왜란을 예측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종 말년에 한양에 와 살면서 판서(判書) 권극례(權克禮)와 친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왜변이 있을 것인데, 만일 진년(辰年)에 일어난다면 그래도 구할 수 있지만, 사년(巳年)에 일어난다면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³⁵⁾

공이 영천(永川)의 박록(朴濩)과 일찍이 소백산에 올랐다. 동남의 이상한 기운을 바라보고 공이 크게 놀라 박록에게 이르러 말하길, “진사(辰巳)년에

35) 閔仁伯, 『苔泉集』 4, 「摭言」 南師古善於風水天文卜筮相術; 申欽, 『象村雜錄』 52, 「求正錄」 上 春城錄.

해구(海寇)가 재앙을 만들 것이다. 반드시 수도를 버리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박록이 복지(福地)를 묻자 공이 말하길, “그러나 풍(豐)·영(榮) 두 읍에는 들어가지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어서 보지 못하겠지만, 공은 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모두 그 말과 같았다.³⁶⁾

첨정(金僉) 김윤신(金潤身)은 정북창(鄭北窓)의 사위이다. 첨정은 술인(術人) 남사고와 친했다. 매번 남사고의 집에 가면 마의노인(麻衣老人)이 앉아있었는데, 남사고와 서로 마주보고 술(術)을 논하였다. 노인이 말하길, “푸른 옷[靑衣]과 나막신(木履)은 나라의 일을 알 수 있다.” 남(南)이 그것을 생각하고 한참 지나 그러하다고 말하였다. ... 노인이 또 말하길, “멀지 않아 나라에 반드시 병화가 있다. 난여(鑾輿)가 궁을 떠나는 재앙이 있다. 서쪽 변방에 이른 후에 바야흐로 옛 수도를 회복할 수 있다.” 남이 또 생각하고 한참 지나 그러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에 또 말하길, “재차 한강을 건너지 않는다.” 남이 생각에 잠겨 시간이 지나서 말하길 “과연 그러하다.”고 하였다. 첨정은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들었다.³⁷⁾

위의 사료는 저자의 생몰년에 비추어 각각 17세기 초반, 17세기 중반, 17세기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초반 기록에서 남사고는 권극례(權克禮)에게 임진왜란의 발발을 알려주면서 그 시기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다. 이에 반해 17세기 중반의 기록에서는 박록(朴漉)이 청자(聽者)로 등장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을 알려주게 된 계기도 전혀 다르다. 이때 남사고는 박록에게 피란처까지 점지해주는데, 17세기 초반에는 볼 수 없던 내용이다.³⁸⁾ 17세기 후반의 기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이루고 있다. 남사고와 마의노

36)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28쪽.

37) 金榦, 『厚齋先生別集』 2, 「雜著」 隨錄.

38) 李暉光, 『芝峯類說』 18, 「技藝部」 方術. “南師古蔚珍人 善推占望氣 嘗清朝向東呪曰殺氣甚盛可惡 謂人曰 壬辰倭寇必大至 我不及見 君輩慎之 師古既死 其言驗云.”

인(麻衣老人) 간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남사고는 임진왜란의 발발은 물론 그 경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푸른 옷[靑衣]과 나막신[木履]을 통한 예지는 이전에는 회자되지 않았던 화소(話素)였다.

임진왜란의 사례처럼 동일한 예언일지라도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남사고의 예언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활발히 회자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예언이 내용과 형식에서 일관성을 갖지 않는 사실은 반대로 예언이 확산될수록 과장과 왜곡이 가해졌음을 뜻하기도 한다.

2) ‘예언가 남사고’에 대한 인식

남사고의 예언은 17세기에서 18세기의 많은 유학자들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예언을 직접 들은 인물은 고사하고 실제로 남사고를 만났던 인물도 없었다. 그런 유학자들이 전해들은 것만으로 남사고가 앞날을 내다봤다고 판단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남사고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인에게 비기를 전해 받았다는 설이 퍼져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설은 『격암선생유전』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소식적에 풍악산(楓岳山)에 놀러갔다가 신선과 같은 중을 만나 석실(石室)로 인도된 후 도서(道書) 3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세상에서는 그 도서를 전해준 신승(神僧)이 정희량(鄭希良)이라고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³⁹⁾ 이러한 내용은 『남격암유적』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된다.⁴⁰⁾ 『해동이적(海東異蹟)』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데,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며 비기가 아닌 비술(秘術)을 전수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밖에

39)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31~32쪽.

40) 李裁,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39쪽.

『태천집』⁴¹⁾ 『상촌잡록』⁴²⁾ 『지봉유설』⁴³⁾에서도 남사고가 비결을 전수받은 까닭에 기이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설에 대해 임유후는 괴이한 일로 여기면서도 장량(張良)이 이교(圮橋)에서 도서(道書)를 받았던 전설을 근거로 “없었던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평하고, 어느 정도 신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남사고의 남세영을 만났을 때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자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다. 이재 역시 『남격암유적』에서 “이 설이 사실이라면 또한 신기한 일”이라고만 평할 뿐이었다. 이러한 ‘비기전수설(秘記傳受說)’은 그만큼 남사고의 예언이 절묘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회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해 하나의 설(說)로 치부될 뿐 폭넓은 신뢰는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이보다는 남사고가 천문·역학으로 명성이 높았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사고에 관한 기록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그의 뛰어났던 천문·역학 실력이다.⁴⁴⁾ 천문과 역학은 각각 천체나 하늘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과 우주론적 철학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인간사(人間事)를 내다보기 위한 토대가 되는 학문이다. 이러한 천문역법에 대한 관심은 조선 중기부터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⁴⁵⁾

남사고가 천문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은 선조 초에 관상감교수에 제수된 사실로 보아 분명하다. 천문에 관한 그의 명성은 동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이이는 물론이고, 조정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이이는

41) 閔仁伯, 『苔泉集』 4, 「摭言」 南師古善於風水天文卜筮相術.

42) 申欽, 『象村雜錄』 52, 「求正錄」 上 春城錄.

43) 李晬光, 『芝峯類說』 14, 「文章部」 7 哀辭.

44) 閔仁伯, 『苔泉集』 4, 「摭言」 南師古善於風水天文卜筮相術; 申欽, 『象村雜錄』 52, 「求正錄」 上 春城錄; 朴綱, 『无悶堂先生文集』 5, 「南冥先生年譜」; 許筠, 『惺所覆瓿藁』 24, 「說部」 3 惺翁識小錄下; 趙鎮寬, 『柯汀遺稿』 9, 「易問」 上 先變問; 『輿地圖書』 上, 「江原道」 蔚珍 人物;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技藝類 卜筮 祕緯圖讖辨證說; 『英祖實錄』, 9년 8월 26일 갑술.

45) 김일권, 2006, 「조선 중기 우주론과 천문역법의 주역적 인식」, 『泰東古典研究』 2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참고.

1572년(선조 5) 정월(正月)의 『석담일기(石潭日記)』에 “성관(星官) 남사고가 일찍이 누구에게 준 글에, 금년에는 처사성(處土星)이 광채가 없다고 하더니 오래지 않아 과연 식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⁴⁶⁾ 1593년(선조 26) 1월 이조판서인 이산보(李山甫)는 선조에게 남사고에 대해 “하늘의 운기를 보고 길흉을 점쳤다”고 아뢰고 있다.⁴⁷⁾ 『석담일기』와 『선조실록(宣祖實錄)』의 기록은 적어도 16세기 후반에 남사고가 천문에 정통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는 인식이 조야(朝野)에 퍼져있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남사고는 역학에 관해서도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다. 그가 역리(易理)에 깊이 빠져들어 통달했다는 사실은 남세영의 증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양사언(楊士彦)과의 만남’은 역학에 관한 남사고의 학문적 깊이와 명성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이다.

양사언(楊士彦)이 공(公)의 명성을 듣던 터라 강릉부사(江陵府使)로 부임하자 공을 초청하여 역리(易理)를 토론하였다. ... 양사언(楊士彦)이 절을 하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선생이 신인(神人)인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하기를 지극히 존경하였다. 서찰로 안부를 물을 때면 흑사씨(師氏)라고도 쓰고 흑자동선생(紫洞先生)이라고도 썼으니 공을 공경하기가 이와 같았다.’⁴⁸⁾

일화를 요약하면, ‘양사언이 남사고를 초청해 역리를 토론한 후 탄복하고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양사언이 남사고에게 역학을 배웠다는 사실은 『용주선생유고(龍洲先生遺稿)』에서도 확인이 되는데,⁴⁹⁾ 역학에 관한 남사고의 지식이 그만큼 깊었으며 그로 인한 명성 또한 자

46) 李珥, 『石潭日記』 上, 隆慶六年壬申.

47) 『宣祖實錄』, 26년 1월 12일 정묘.

48) 任有後, 1997, 「格庵先生遺傳」,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31쪽.

49) 趙綱, 『龍洲先生遺稿』 15, 「墓碣」 府使蓬萊楊公墓碣銘 并序.

자했음을 보여준다.

남사고가 역학에 조예가 깊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역학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⁵⁰⁾ 역학에 관한 그의 저서는 물론이고, 「완역도」마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남사고가 '해동(海東)의 강절(康節)'이라 불리며 소옹(邵雍)과 비견되었던 사실을 통해 그의 역학이 상수역(象數易)에 가까웠던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남사고는 소옹과 자주 비견되곤 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역학사상 외에 또 다른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소옹은 상수역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여러 예언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탁월한 점술가로도 평가받았다.⁵¹⁾ 따라서 남사고가 '해동의 강절'로 불렸던 이면에는 소옹처럼 역학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예언가였다는 인식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남사고가 천문과 역학에 정통한 예언가라는 인식은 그에 관한 기록이 전파되면서 견고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령(金垞)의 사례가 있다. 김령은 『계암일록(溪巖日錄)』에서 “남사고가 천문·지리·망기(望氣)·추수(推數)에 뛰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와 같은지 알 수 없다”며 남사고가 앞날을 내다봤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으나, 임유후가 쓴 글을 받아 보고서야 신뢰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⁵²⁾

김령의 사례처럼 명망 있는 유학자의 기록은 후대나 당대의 유학자가 남사고를 예언가로 인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남사고의 예언 여부나 그 신뢰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선학이 남긴 기록과 견해는 남사고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선학들의 기록과 견해를 그대로 믿

50) 문계곤, 2000, 「조선초기 역학사상 시론」, 『格菴 南師古의 生涯와 思想』, 蔚珍郡·朝鮮史研究會, 115~116쪽 참고.

51) 곽신환, 2014, 「조선유학과 소강철 철학」, 예문서원, 87~91쪽 참고.

52) 金垞, 『溪巖日錄』 7, 戊寅八月.

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남사고의 예언이 모두 실현된 상황은 선학의 기록들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남사고가 천문·역학에 정통했던 예언가로 평가받는 가운데 그를 덕행이 높았던 유학자로 추앙했던 유학자들의 반응은 흥미롭다. 이들은 대체로 17세기 이후에도 그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옥계서원이 소실된 후 남사고를 배향하기 위한 사우(祠宇)를 건립하려던 유생들이 태수(太守)에게 보낸 글이다.

효우(孝友)를 극진히 행하였으며, 학문은 천(天)과 인(人)을 헤아렸습니다. ... 그러나 글을 감추고 은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천문(天文)·역수(易數)가 해동강절(海東康節)로 삼을 만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행과 염개(廉介)가 여남(汝南)의 안자(顔子)로 삼을 만함은 잘 알지 못합니다.⁵³⁾

유생들은 천문이나 역수(易數)보다는 그의 덕행과 청렴함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사고가 효행과 청렴함보다 천문이나 역수로만 명성이 높은 이유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깊이 숨어살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유생들처럼 남사고를 추앙했던 이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전설과 야사 및 허다한 비기 등은 믿을 수 없으며, 그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⁵⁴⁾

그러나 정작 자신들도 천문·역학에 의한 남사고의 명성을 인정하고 그의 예언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남사고의 방손(傍孫)인 남고는 남사고가 정통 유학자와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유학의 극처에 도달한 인물임을 주장했지만,⁵⁵⁾ 그의 예언

53) 1997, 『蒙泉書堂儒生田銜等上太守書』,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65쪽.

54) 정우락, 앞의 책, 151쪽.

55) 같은 책, 151쪽 각주 7).

을 거론하면서 예언가였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⁵⁶⁾ 남고의 사례는 16세기 말에 남세영을 비롯한 율진 유생들이 남사고의 예언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17세기에서 18세기를 거치며 남사고를 예언가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4. 18세기 비기의 저자, 남사고

1) 『남사고비결』과 『십승기』의 출현

남사고의 예언은 그가 앞으로의 일을 누군가에게 언급하면서 알려졌으며, 구전이나 유학자들의 기록을 통해 후대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파 과정에서 남사고가 예언을 문서로 남겼다가, 혹은 그 문서를 유학자들이 인용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18세기가 되면 남사고가 남겼다는 문서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과 『십승기(十勝記)』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남사고비결』은 1733년 전라도 남원에서 발생한 괴서 사건의 관련자들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비결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결의 외형과 기술 형식이다. 비결을 소장하고 있던 승려 태진(太眞)의 진술에 의하면, 비결은 책자가 아니라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다. 보다 정확하게는 두 번 접은 종이였으며, 가로 세로가 각각 1.2m와 60cm 정도인 두루마리였다.⁵⁷⁾ 형식은 앞으로 일어날 길흉을

56) 南阜, 『時庵先生文集』 14, 「墓碣誌銘」 格菴南公墓碣銘 并序.

57) 백승중, 1999, 「18~19세기 「정감록」을 비롯한 각종 예언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해석」,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265쪽.

연도순으로 차례대로 기술한 편년체였으며, 갑자년(1684)부터 기술이 시작되었다고 한다.⁵⁸⁾

둘째, 비결의 내용이다. 비결은 소장자들이 추국 전에 이미 폐기한 까닭에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심문 과정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결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 ‘유혈성천노색연절(流血成川路塞煙絕)’은 심문관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구절이었다. 진술에 따르면, 이 구절은 1728년에 일어난 무신란(戊申亂)에 관한 대목으로 “흐르는 피가 시내를 이루고, 길은 막히고 연기가 끊긴다”는 뜻이었다. 또한 어느 해에 관한 구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민보산림(民保山林)’, ‘만가여일(萬家餘一)’은 각각 “말세에 당하여 백성이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산림이다”, “만집 가운데 한 집만 남는다”는 뜻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백저안답(白猪按答)’, ‘봉목장군(蜂目將軍)’, ‘승입병도(僧入兩都)’ 등의 구절도 확인되지만, 별다른 진술이 없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⁵⁹⁾ 추국 과정이라는 정황상 관련자들이 구절의 뜻을 모두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자세히 진술하지 않은 것 같다.

남사고비기(南師古秘記)는 이미 남원의 패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상당수 퍼져있었다. 패서 사건을 계기로 영조가 남사고에 대해 묻자,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은 “남사고비기가 세상에 전해지자 세상 사람들이 말을 덧붙이고 부회(傳會)하여 와전(訛傳)된 것이 많다”고 아뢰고 있으며,⁶⁰⁾ 좌참찬(左參贊) 송인명(宋寅明) 또한 “남사고비기가 여염 간에 또한 많이 있다”고 아뢰었다.⁶¹⁾ 이때 서명균과 송인명이 언급한 남사고비기가 남원 패서 사건의 『남사고비결』과 같은 문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수가 많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58) 『英祖實錄』, 9년 8월 18일 병인.

59) 『英祖實錄』, 9년 8월 18일 병인.

60) 『英祖實錄』, 9년 8월 26일 갑술.

61) 『英祖實錄』, 9년 8월 30일 병인.

18세기는 『남사고비결』 외에도 『정감록(鄭鑑錄)』을 비롯한 다양한 비기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시기였다.⁶²⁾ 특히 『정감록』의 경우 1739년(영조 15)에 그 출현이 확인되지만,⁶³⁾ 『남사고비결』과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세간에 퍼져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⁶⁴⁾ 비록 이들의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같은 편년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말세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은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관련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사고비결』을 비롯한 여러 비기들은 서명만 달랐을 뿐 대체로 동일한 형식과 성향을 띠기도 하였다.

한편, 『남사고비결』과 함께 출현한 남사고의 문서는 『십승기』였다. 십승(+勝)이란 10여 곳의 승지(勝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을 지칭하지만 병화나 흉년이 들지 않는 곳을 뜻하기도 한다. 『십승기』라는 서명은 1751년에 저술된 『택리지(擇里志)』에서 확인된다.

고을의 서북편에 무성산(茂盛山)이 있다. … 그 안에 마곡사(麻谷寺)와 유구역(維鳩驛)이 있다. … 그러므로 남사고(南師古)의 『십승기(十勝記)』에서 유구(維鳩)와 마곡사(麻谷寺) 두 골짜기 사이를 피란할 곳이라 하였다.⁶⁵⁾

이중환(李重煥)은 팔도총론(八道總論)에서 충청도 무성산(茂盛山)의 마곡사(麻谷寺)와 유구역(維鳩驛)을 설명하면서 남사고의 『십승기』를 인용하고 있다. 『택리지』의 내용은 19세기에 기록된 「유마변증설(維麻辨證說)」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이규경(李圭景)은 유구와 마곡의 지리에 대해 논한 후 말미에 “격암 남사고의 『십승기』는 유구와 마곡의 양쪽 물 사이를 숨고 피할 땅으로 삼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⁶⁶⁾

62) 백승중, 앞의 논문 참고.

63) 『承政院日記』 890책, 영조 15년 5월 15일 경신; 『備邊司謄錄』 105책, 영조 15년 6월 15일; 『英祖實錄』, 영조 15년 8월 6일 경진

64) 백승중, 1999, 「18세기 전반 서북(西北) 지방에서 출현한<<정감록(鄭鑑錄)>>」, 『역사학보』 164, 역사학회 참고.

65) 이중환 지음·이익성 옮김, 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95쪽.

『십승기』 역시 『남사고비결』과 마찬가지로 전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학산한언(鶴山閑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돈복(辛敦復)은 조선의 비경과 복지를 논하면서 남사고가 점지한 10여 곳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사고의 십승지는 ① 풍기(豊基)의 금계촌(金雞村) ② 내성현(奈城縣)의 춘양면(春陽面) ③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 아래 증항(甌項) 근처 ④ 운봉(雲峯) 두류산(頭流山) 아래 동점촌(銅店村) ⑤ 예천(醴泉) 금당동(金堂洞) ⑥ 공주의 유구(維鳩川)과 마곡사(麻谷川) 두 줄기 물 사이 ⑦ 영월(寧越) 정동(正東)의 상류(上流) ⑧ 무주(茂朱) 무풍(舞豊)의 북쪽 골짜기 ⑨ 부안(扶安)의 호암 아래 변산(邊山)의 동쪽 ⑩ 함천(陝川) 가야산(伽倻山) 남쪽 만수동(萬壽洞)였다.⁶⁷⁾

『십승기』라는 서명의 문서는 비록 18세기 중반에 확인되지만, 『남사고비결』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부터 상당수 퍼져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은 『남격암유적』에서 비기십승(秘記十勝)이 많음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논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⁶⁸⁾ 그러나 남사고의 십승지는 재생산을 거듭한 『남사고비결』과는 달리 별다른 변화 없이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의 『학산한언』에 기록된 십승지가 19세기에 저술된 「낙토가작토구변증설(樂土可作菟裘辨證說)」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⁶⁹⁾ 이는 『남사고비결』에 대한 언급이 1733년 이후로

6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地理類 地理雜說 維麻辨證說.

67) 신돈복 지음·김동욱 옮김, 2007, 『국역 학산한언』 2, 보고서, 164~165쪽.

68) 李戡, 1997, 「南格庵遺蹟」,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39쪽.

6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地理類 地理雜說 樂土可作菟裘辨證說.

명칭	위치
제일(第一)	풍기(豊基) 차암(車巖)의 금계촌(金雞村)
십승길지제이(十勝吉地第二)	안동부(安東府) 내성현(奈城縣)의 춘양면(春陽面)
제삼(第三)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 아래 증항(甌項) 근처
십승길지제사(十勝吉地第四)	운봉(雲峯) 두류산(頭流山) 아래 동점촌(銅店村)
제오(第五)	예천(醴泉) 금당동(金堂洞)의 북쪽
-	유구(維鳩)와 마곡(麻谷) 사이

사라지고 그 예언적 기능이 『정감록』을 비롯한 다른 비기로 통합된 것과 달리 『십승기』는 19세기까지도 남사고의 비기로서 명맥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남사고비결』과 『십승기』은 16세기에서 17세기의 사건을 다뤘던 남사고의 예언과 그 성향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남사고의 예언은 대체로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의 종식이나 앞으로의 희망을 내다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문정왕후의 승하’는 문정왕후와 보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의 종식을 예견한 것이며, ‘선조의 즉위’는 태평성군의 출현을 예견한 것이었다.⁷⁰⁾ ‘동서봉당의 발생’ 역시 봉당 간의 갈등보다는 그 필연성과 서인의 안정된 집권을 내다보는 데에 있었다.⁷¹⁾

이에 반해 『남사고비결』과 『십승기』는 모두 앞날을 말세(末世)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남사고비결』이 그러한데, 끊임없는 환란의 발생과 그로 인한 참혹함을 이야기할 뿐 그 종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론 기존의 예언에도 임진왜란을 비롯한 환란이 등장하지만, 그 초점은 환란으로 인한 참혹함에 있다기보다는 예상되는 환란에 국가적 대비를 촉구하는 데에 있었다. 『십승기』의 경우, 흉년이나 병란을 피할 수 있는 10여 곳의 승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사고비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흉년이나 병란의 시기가 막연하고, 그 종식이 제시되지 않는 점에서 희망보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데에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십승길지제칠(十勝吉地第七)	영월(寧越) 상동(上東)의 상류(上流)
십승길지제팔(十勝吉地第八)	무주(茂朱) 원동학(猿鶴洞)·무풍(舞豊) 북동(北洞) 결 응달
격암길지(格庵吉地)	부안현(扶安縣) 변산(邊山)에 있는 길고 외진 동부
격암길지(格庵吉地)	합천(陝川) 가야산(伽倻山) 아래 남쪽 만수동(萬壽洞)

70) 申欽, 『象村雜錄』 52, 「求正錄」 上 春城錄.

71) 李肯翬, 『燃藜室記述』 18, 「宣祖朝故事本末」 東西南北論分.

2) 비기로 인한 반향

18세기가 되면 16세기에서 17세기에는 볼 수 없던 『남사고비결』과 『십승기』가 출현한다. 이들은 각각 1733년, 1751년에 확인이 되지만, 18세기가 되면서 이미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남사고의 비기가 출현하자 기존의 예언과는 달리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의 핵심은 그 내용이 인심을 혼란시키고 국가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남사고비결』은 지금 혹은 앞날을 말세로 바라보는 성향 때문에 문제가 컸다. 게다가 이것이 과거 사건과 같이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남사고비결』처럼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심을 현혹시킨다는 점에서 ‘남사고의 십승지’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박지원(朴趾源)은 「동란섭필(銅蘭涉筆)」에서 병란을 피해 무학(無學)이나 남사고가 점지한 10여 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5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하고, 임금이 파친한 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피란처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⁷²⁾ 이규경 또한 남사고가 예언한 복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점을 들며 이를 맹신하는 것을 경계하였다.⁷³⁾

이처럼 남사고의 비기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것이 곧 남사고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남사고의 비기 저술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규경은 「낙토가작토구변증설」의 서두에 “이는 반드시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자가 두찬(杜撰)하고, 격암에 가탁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익(李瀾) 또한 “근세에 또 의상(義相)과 남사고의 기록이 있어 어리석은

72) 朴趾源, 『燕巖集』 15, 「熱河日記」 銅蘭涉筆.

7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地理雜說 樂土可作菟裘辨證說.

사람들이 혹 준거해 믿으니 이것은 다 불초남자(不肖男子)의 망령된 말을 믿는 것⁷⁴⁾이라며 남사고비기를 누군가의 가탁에 의한 산물로 받아들였다.

이들의 견해처럼 남사고가 비기를 저술했다는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비록 남사고의 저서 가운데에 운명에 관한 것을 수집하여 기록한 『임광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서명이 다를뿐더러 이미 생전에 남사고가 분신하였다. 이외에 비기로 추정할만한 저서는 물론이고 남사고가 비기를 저술했다는 기록조차 찾을 수가 없다. 더구나 18세기에 명망 높은 인물에 가탁한 비기가 성행했음을 고려하다면,⁷⁵⁾ 오히려 남사고가 비기를 저술하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기의 출현을 기점으로 '예언가 남사고'에 대한 인식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앞선 <표 2>에서 남사고의 예언을 기록에 남긴 유학자의 생몰년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16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에 반해 18세기 초반 이후에 활동했던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남사고의 예언을 기록한 유학자가 18세기 초반 이후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18세기 초반은 남원 패서 사건으로 『남사고비결』이 조정에서 문제로 불거진 시기이기도 했다.

조정 역시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사고비결』을 남사고의 저서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자못 컸다. 이후 예언은 잡술로 폄하되었고, 이와 관련한 비기나 방서(方書)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⁷⁶⁾ 비록 남사고가 비기를 저술했다는 인식이 열렸더라도 그에 가탁한 비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예언에 대해 신뢰를 표명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유학자들에게 분명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남사고와 그의 예언은 점차 기피의 대

74) 李漢, 『星湖僊說』 2, 「天地門」 高麗秘記.

75) 1979, 「戊辰 罪人之曙推案」, 『推案及鞫案』 184, 아세아문화사, 93쪽.

76) 『英祖實錄』, 9년 8월 30일 무인. 『承政院日記』 787, 영조 10년 9월 17일 기축.

상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와 동시에 18세기에는 실학이 전성기를 이루면서 예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다음은 18·19세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의 글이다.

술수학(術數學)은 학문이 아니라 혹술(惑術)이다. … ‘천랑성(天狼星)이 자미성(紫微星)을 범하였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병란(兵亂)이 있을 것이다.’ 하기도 하고 … ‘아무 해에는 반드시 병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거나, … 아, 실상이 없는 명예를 도둑질하여 무거운 명망(名望)을 짊어지고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추대 받는 사람은 바로 이 술수학을 하는 선생들인 것이다. … 복서(卜筮)·간상(看相)·성요(星耀)·두수(斗數) 등 술수(術數)로 부연하는 모든 것은 다 혹술(惑術)일 뿐 학문이 아니다.⁷⁷⁾

정약용은 예언을 혹술(惑術)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언에 대한 이 같은 견해는 정약용뿐만 아니라 당대의 실학자인 박지원, 이익, 이규경 역시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저서를 보면 남사고의 예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남사고비기에 대한 비판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표면적으로 남사고의 예언에 대한 비판이 없었더라도, 이들이 남사고비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예언가 남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남사고비기의 출현은 ‘예언가 남사고’에 대한 유학자들의 인식을 흔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중반 이후 남사고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긴 유학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물론 남사고에 관한 기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남사고를 기록으로 남긴 유학자들은 존재하였다. 다만, 그 초점이

77) 丁若鏞, 『茶山詩文集』 11, 「論」 五學論 5.

이전과 달리 예언에서 동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⁷⁸⁾

유학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예언가 남사고'는 오히려 '유랑지식인(流浪知識人)'처럼⁷⁹⁾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이로 인해 불만을 품은 계층의 관심과 활용의 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예언가 남사고'를 자신들의 뜻을 표출하고 펴기 위한 명분과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비록 1733년 남원 패서 사건 이후 남사고비기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지만, 『정감록(鄭鑑錄)』에 수록된 다양한 남사고비기는 그 가능성을 방증한다.⁸⁰⁾ 『정감록』은 18세기 이래 소외된 계층에 의해 발생한 유언비어나 패서사건 혹은 변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예언가 남사고'를 탄생시키고 향유한 것은 유학자들이었으나, 그들이 떠나간 후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된 불만 계층이었던 것이다.

5. 맺음말

16세기 초 울진의 재지사족 가문에서 출생한 남사고는 유생의 신분으로 한평생을 보냈다. 그러나 사후에 그에 대한 유학자들의 평가는 서로 엇갈렸다. 울진 유생들이 남사고를 지역의 사표로 지속적으로 추앙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남사고는 탁월한 예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이러한 후대의 엇갈린 평가는 그를 바라

78) 金鍾, 『菴庭遺藁』 3, 『擬唐別藁』; 卞鍾運, 『歎齋文鈔』 2, 『說』 風水說; 金平默, 『重菴集』 16, 『雜著』 大谷問答; 李裕元, 『林下筆記』 29, 『春明逸史』.

79) '유랑지식인'이라는 용어는 정석종이 처음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주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윤병철, 1997, 「조선후기 유랑지식인의 사회사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영민, 1997, 「유랑지식인과 사회변혁운동」, 『정신문화연구』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순우, 1997, 「朝鮮後期 流浪知識人 形成의 社會文化的 背景」, 『정신문화연구』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진재교, 1997, 「李朝後期 流浪知識人의 文學史的 意味」, 『정신문화연구』 20, 한국학중앙연구원.

80) 안춘근, 앞의 책.

보는 관점과 인식의 차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울진의 유생들은 남사고가 『소학』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후학에게 학문적 도움을 줬다는 점을 근거로 덕행이 높았던 유학자로 인식했던 반면에, 일단의 유학자들은 그가 천문과 역학에 밝았던 점을 근거로 예언가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인식이 엇갈리던 중 남사고의 예언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자, 인식은 점차 탁월한 예언가로 정도되어 갔다. 그로 인해 남사고를 덕행이 높은 유학자로 추앙했던 사람들조차도 그의 예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사고의 예언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보다는 천문·역학에 밝았다는 인식과 남사고를 예언가로 평가했던 선학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예언가 남사고’는 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초 남사고에 가탁한 비기가 등장하자, ‘예언가 남사고’에 대한 유학자들의 관심은 점차 식어갔다. 남사고의 비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남사고와 그의 예언이 유학자들에게 있어 부담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중반이 지나면 남사고의 예언은 점차 유학자들의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예언가 남사고’는 유학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이로 인해 불만 품은 계층의 관심과 활용의 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1. 사료

『葛庵先生文集』, 『溪巖日錄』, 『記言』, 『懶齋先生文集』, 『滯庭遺藁』, 『隱峯全書』, 『茶山詩文集』, 『无悶堂先生文集』, 『屏谷先生文集』, 『瓶窩先生文集』, 『備邊司謄錄』, 『象村雜錄』, 『石潭日記』, 『惺所覆瓿藁』, 『星湖僿說』, 『獻齋文鈔』, 『松窩雜說』, 『損菴集』, 『承政院日記』, 『時庵先生文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於于集後集』, 『五洲衍文長箋散稿』,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研經齋全集』, 『燕巖集』, 『龍洲先生遺稿』, 『柯汀遺稿』, 『林下筆記』, 『立齋先生遺稿』,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重菴集』, 『芝峯類說』, 『靑莊館全書』, 『楸菴集』, 『苔泉集』, 『退堂先生文集』, 『八松先生文集』, 『厚齋先生別集』, 『海月先生文集』, 『海東異蹟』

2. 단행본

1997, 『格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영인본)

1979, 『戊辰 罪人之曙推案』, 『推案及鞫案』 184, 아세아문화사(영인본)

곽신환, 2014, 『조선유학과 소강철 철학』, 예문서원

백승중, 2007, 『예언가 우리 역사를 말하다』, 푸른역사

신동복 지음·김동욱 옮김, 2007, 『국역 학산한언』 2, 보고사

안춘근, 1981, 『鄭鑑錄集成』, 아세아문화사

윤인숙, 2016, 『조선 전기의 사람과 <소학>』, 역사비평사

이중환 지음·이익성 옮김, 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朝鮮史硏究會 編, 2000, 『格菴 南師古의 生涯와 思想』,蔚珍郡·朝鮮史硏究會

3. 논문

金容欽, 2006, 「仁祖代 前半 정치적 갈등과 朋黨論」, 『역사와 경계』 60, 부산경남사학회

김일권, 2006, 「조선 중기 우주관과 천문역법의 주역적 인식」, 『泰東古典硏究』 2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박재락, 2012,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의 '구천십장九遷十葬' 설화와 풍수적 재조명」, 『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백승중, 1999, 「18~19세기 『정감록』을 비롯한 각종 예언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해석」,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_____, 1999, 「18세기 전만 서북(西北) 지방에서 출현한<정감록(鄭鑑錄)>」, 『역사학보』 164, 역사학회

정우락, 1998, 「남사고 전승에 나타난 천명관과 비극적 성격」, 『大東漢文學』 10, 대동한문학회

한미옥, 2010, 「남사고 설화에 나타난 전승 의식」, 『남도민속연구』 20, 남도민속학회

Evaluations on the birth of 'Nam Sago the prophet' and its Change in the later Joseon Dynasty

Park, Sang-Hyun*

Nam Sago, born in a provincial noble family of Uljin in the early sixteen century, lived his while life as an ordinary Confucian scholar. It is interesting that his scholarly acquisition was given a mixed assessment from the later generation after his death: while students of Confucianism in Uljin looked him up as their preceptor, other Confucian scholars considered him as an outstanding prophet. This mixed reception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in evaluation on him.

On the one hand, scholars in Uljin assessed Nam Sago as a virtuous Confucian, given that he had put Zhu Xi's philosophy into practice and had given a good scholarly example to younger scholars. On the other hand, most of Confucian scholars regarded him as a prophet since he had been an expert in astronomical observations and divinations. However, as his prophecy spread widely, he was regarded nothing less than a great prophet. In fact, even among those who had revered him as a virtuous scholar his prophecy was of great interest. That is to say, Nam Sago was actually an 'invented prophet,' seeing that this evaluation stemmed from the fact that he had been good at astronomical observations and divinations, even though the authenticity of his prophecy would never be proved.

In the early eighteen century, however, the Confucian scholars' attention on his prophecy subsided, when a writing of divination in his name circulated.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history

This is because the writing became a social problem and nobody wanted to mention it. After the mid-eighteen century, therefore, his prophecy disappeared in scholarly writings of Confucians. It is speculated that 'Nam Sago the prophet' would be actively reproduced and enjoyed by a neglected class of people since then.

Key Words: Nam Sago(南師古), The prophet, Writing of divination, Confucian scholar, Uljin